

파키스탄·스리랑카에 성결 복음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증함으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이 전파됐다.

순 중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매주 예배를 통해 듣고 배운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를 쌓아가면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그 만큼 순종하는 것이 쉬워진다.

성구 암송은 제 삶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을 매일 읽고, 한 구절을 암송함으로 영육 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는 황금란 전도사의 암송 비결과 이화영 자매의 이야기.

술과 마약을 끊고 힌두교에서 개종하다

술과 마약에 빠져 있던 폭력 가장이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어 온 가족이 힌두교에서 개종해 주님을 섬기게 됐다.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씨티 바브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509호 2011년 11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길태식 목사, 파키스탄·스리랑카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인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이뤄진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선교, 성결 복음과 이를 확증하는 하나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이 개종하고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① 지난 11월 9일 5천여 명이 운집한 라호르 집회(장소: Full Gospel Assembly Ground), ② 19일 2천 5백여 명이 운집한 스리랑카 콜롬보 집회, ③ 21일 스리랑카 콜롬보 목회자 세미나, ④ 우리 교회 열정팀의 공연, ⑤ 손수건 기도를 해 주는 강사 길태식 목사, ⑥ 각색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하는 사람들.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인 파키스탄과 국민의 약 90%가 불교도인 스리랑카에서 성령이 참임을 입증하는 권능의 역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해 많은 사람이 구원은 물론, 치료와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난 11월 8일부터 24일까지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를 강사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있었다. 파키스탄 라호르, 구즈란왈라, 라와핀디,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지역과 스리랑카 콜롬보, 와팔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총 13차례의 집회가 있었다.

목회자 세미나 시 길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선악과를 두신 이유',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등에 대해 강의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말씀을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했으며, 때론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했다.

특히 손수건 집회 시에는 치료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나타나 참석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길 목사가 권능의 손수

건(행 19:11-12)으로 기도하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위샬(남, 11)이 보게 되고, 날 때부터 앞을 잘 볼 수 없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했던 아우사프(여, 18)도 즉시로 글씨도 잘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또한 다리 수술 후유증으로 6년간 목발 없이 걷을 수 없었던 만타즈 비비(여, 45)가 기도받은 즉시 걷게 됐으며, 이나타(여, 16)는 잇몸에 난 종양이 기도받은 즉시 사라졌다.

이 외에 심장질환, 부인병, 고혈압, 이명, 말라리아 열병과 갖가지 통증이 치료되고 악한 영으로부터 놓임받는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치료 역사가 나타났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 앞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

이번 선교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자립력 교회로 가입됐으며 만민의 사역을 사모하는 많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었다.

GCN 방송을 매일 6시간 이상 송출하는 파키스탄 라호르의 이삭TV 대표 안위 파잘 목사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및 GCN 방

송 프로그램이 중동 여러 나라에 전파됨으로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치료받고 있다.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집회 요청이 이어졌다. 그 가운데 '2000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준비위원장 사무엘 파베이즈(처치 오브 파키스탄 교단 시알

콧 지역 총회장, 50만 성도 보유) 목사는 "이곳의 많은 사람이 파키스탄 성회를 기억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재록 목사를 초청해 시알콧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파키스탄·스리랑카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의 세계 교구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매콤한 이웃사랑' 제14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지난 11월 22일~23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있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회원들과 봉사자들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약 3천 포기의 김장김치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교회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청각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됐다. 또한 신대방 2동 주민센터, 구로 예텐장애인복지센터 등에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순종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22-23)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은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결한 마음, 곧 주님 닮은 마음을 이루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결한 마음을 이루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로마서 8:6~7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나 육신의 생각

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도착하거나 표류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육신의 생각을 좇으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지요. 성령의 음성 대신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이 보기에 옳은 길 또는 좋은 길을 갑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이지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지만 순종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성결’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자신에게 어떤 악이 있고 어떤 결여가 있는지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것들이 보이고 능히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13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 이하 구절을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선 능력의 일꾼이 돼야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지식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많이 알긴 하지만 마음에 이루지 않음으로써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갑옷을 입고 손에 칼과 방패를 들었다 해도 군사가 이것들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

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11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했다 해도 마음에 이루지 않았다면 막상 섬겨야 할 순간에 섬기지 못합니다. 섬김받고 싶은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존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이 마음에 무장돼 있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는 물론 돌아야 할 양 때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쌓인 말씀으로 상담을 해주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의와 틀이 개입돼 양 때를 잘못 인도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무장하되 반드시 마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또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든 말씀을 적용해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추려면 방법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한 주의 세 편 말씀, 즉 금요철야예배, 주일 대예배, 저녁예배 말씀부터 무장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우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루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이루어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듣고 배운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이루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말씀 무장’입니다. 말씀을 무장하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같은 기도를 할 때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말씀이 마음에 무장됩니다. 많은 시간을 내어 “주여, 주여”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서 그 기도가 다 불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바로 ‘중심 기도’를 드릴 때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각자 자신의 기도예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2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

분은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리는지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즐겨 드립니다. 죄의 삯인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은혜, 아름다운 천국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뵈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를 부르며 대화하는 그 시간, 부어 주신 그 술한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 보십시오. 또 그날 그날 감사할 조건, 기뻐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보십시오.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겨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러는 만큼 자연히 중심 기도를 올리게 됨으로 긴 시간도 ‘순간’으로 느껴질 정도로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이처럼 즐겁게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갑니다. 날마다 이런 중심의 기도, 불같은 기도를 올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28-30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예배를 통해 듣고 배운 말씀을 붙잡고 불같은 기도를 계속 쌓아가면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주 안에서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 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02) 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안·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매일 10분! 성구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28)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해 남녀노소 구분없이 전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일 10분 정도 성구를 암송하며 예습,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황금란 전도사
(3세대 29교구 부교구장)

“성경을 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니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사랑으로 행복해요”

저는 주님을 영접한 후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암송 카드를 만들거나 때로 손바닥에 적어가며 성구를 암송하고 모임을 만들어 성경을 통독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2000년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주보에 암송 성구를 게재하고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기와 성구 한 절 암송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축복의 말

씀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구 암송은 매일 꾸준히 해야 하기 까닭에 인내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변개하는 마음이 변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섬김받는 것보다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더 편해졌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바뀌었지요.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우쳐 삶을 소중하게 가꿔가며, 영혼들의 소중함도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9:16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

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우치니 살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며 그분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나무와 꽃, 스치는 바람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느끼니 매 순간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심방하며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먹고 자는 시간조차 아껴 틈나는 대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씀퀴즈대회에 출전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0년 제10회 말씀퀴즈대회에서는 영예의 대상을, 올해에는 금상을 수상했지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저의 성구 암송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 암송 구절이 나오면 게재된 주보에 그 내용을 메모합니다

주보에 게재된 그 주의 암송 성구 중 요한일서 3장 7, 8, 9절의 암송 성구가 설교 중에 나오면 그 장절에다 ‘사랑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이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설교 내용을 메모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구의 의미와 함께 설교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기억이 잘됩니다.

암송할 구절이 해당된 성경 한 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암송한다면 12장 전체를 읽습니다. 암송할 성구가 해당되는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면 그림이 그려지듯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기억도 잘되고 말씀 무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암송 구절을 읽고 쓰면서 복습과 예습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소리 내어 암송하는 것보다 쓰면서 암송할 때 토씨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10분 정도 예습과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개하고 인내가 부족했다면 이것이 습관이 돼 변개치 않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하셨습니다. 책을 사주실 때에도 성경과 관련된 도서를 사 주시고, 만화 영화도 성경 인물을 주제로 다룬 내용들로 보여 주셨지요. 틈틈이 성경 뒤에 있는 교독문도 함께 읽고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제가 여섯 살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한 절 외우기’를 말씀하시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으로 ‘성구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천안만민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암송한 성구를 테스트합니다. 여러 차례 상을 받다 보니 성구 암송이 즐겁고 신났습니다.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개최하는 말씀 퀴즈대회에 ‘나도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 지금까지 네 차례 출전했습니다. 비록 수상하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축복의 시간이었지요.

암송 성구들을 모아 책처럼 엮어 휴대하

고 다니면서 읽고, 등하교 길에는 MP3를 이용해 들으니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웠습니다.

성경구절을 이해하고 암송하기 위해 해당 구절의 앞뒤 내용과 이 구절을 주제로 한 설교 말씀 자료까지 찾아 읽으니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또한 매우 컸지요.

성구 암송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우쳐지면서 천국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너무 즐거워요”



이하영 자매 (천안만민교회 중3선교회)

www.gcntv.org |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GCN 방송! 11월 주요 프로그램 안내



신규편성 프로그램 안내 육과 영

이수진 목사의 GCN TV설교 '육과 영'이 월~목 00시 30분, 08시 30분, 1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수요일 저녁시간 제외)



November 11

“깊어가는 가을! 시원한 바람에 붉게 물든 단풍이 곱디고운 11월... GCN 방송이 감동으로 물들입니다~”

추수감사절 말씀: 축복주시는 아버지 (11월 20일 04:00/ 19:00)

신규 말씀: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월~금 16:00)

창세기 강해 (토 07:00/ 17:00)

2011 기관장 교육 (토 10:00)

자세한 편성안내는 GCN 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1577-2073



온 가족이 두려움과 질병의 고통 중에 있었으나

저는 인도 첸나이에서 오토릭사(소형 영업택시) 운전이 생업인 40대 가장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으로 인해 아내와 두 아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지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 떨림과 두통이 심해 견딜 수 없었고, 밤이면 아내와 아들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은 차츰 엉망이 되어갔지요.

아내는 갑상선 및 심장질환으로 호흡이 곤란했고, 오줌소태 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큰 아들은 저를 피해 가출하기 일쑤였고, 브레인 파바(뇌에 영향을 주는 열병)로 인한 시력 악화와 두통 때문에 괴로워했지요. 작은 아들 또한 무용병 증세로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 돌아다녔습니다. 온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지요.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중독된 술과 마약을 끊고

2007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라비 성도가 “2002년 마리아 해변에서 열린 인도 연합대성회를 인도한 강사님의 지교회에 있다”며 첸나이 만민교회(담임 한정희 목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힌두교도였지만 당시 성회에 참석해 이재록 목사님께서 폭우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복음을 전하시며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혼 향한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는 이재록 목사님을 보며 인도 국민은 큰 감동을 받았지요.

성회 소문은 대단해 기독교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성회에 참석

했고, 연인원 3백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인상 깊었던 ‘이재록 목사님’인자라 선뜻 따라나섰습니다. 첸나이 만민교회는 GCN 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 한정희 목사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제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받은 저는 두 번이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몸도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두통도 사라지고 머리가 맑았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20년간 중독된 술과 10년 이상 복용한 마약을 쉽게 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힌두교도 가정의 개종하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고 기독교

로 개종한 저는 교회에서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대표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으며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십리를 깨달으니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또 한 번의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 시 단에서 해 주시는 기도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반복하며 울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하얀 별과 같은 빛이 제 이마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던지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2미터 정도 뒤로 밀려났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남아 있던 손 떨림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제 삶을 180도 바꿔놓았고, 변화된 저를 보며 가족은 매우 기뻐했지요. 하지만 온 가족이 교회에 곧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달리 아내는 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족이 모여 살다 보니 힌두교 가정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정희 목사님이 저의 가정을 심방해 주셨습니다. 이때 기도를 받은 아내는 성령의 불을 받아 주님을 영접했으며, 곧바로 집안에 있는 많은 우상을 버리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과 함께 첸나이 만민교회에 다니며 기도에 힘쓰니

주님을 영접한 후 가정은 평안했지만 매일 밤낮으로 빛 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날 술과 마약으로 인해 생긴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지요.

어느 날 저희 부부는 막막한 현실 앞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엘 형제가 상심한 저희 부부에게 자신이 어려울 때 기도해 축복받은 간증을 하며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있으니 함께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고, 가정이나 일터, 교회 등 모든 곳에서 성실히 행했습니다.

가족 모두 첸나이 만민교회에서 화상예배(GCN 방송)를 통해 설교를 듣고 기도받으며,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하니 믿음이 성장했지요. 더불어 한정희 목사님이 해주시는 손수건 기도로 아내와 아들들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5월, 저희 가족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1만 루피(약 25만 원, 인도 평균 월급)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영육 간에 축복해 주셨지요. 6월 특별 은사집회 시 장모님과 아내, 조카 둘이 시력이 회복돼 안경을 벗었고, 부업으로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하루에 4만 5천 루피(약 120만 원) 수입을 올리는 등 3개월 만에 1억 5만 루피(약 400만 원) 이상의 축복을 받아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선교회 회장으로, 아내는 여선교회 회장과 아동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큰 아들은 1청년부 기관장과 찬양팀으로, 작은 아들은 환돌성가대 대원과 율동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가친척들도 전도돼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지요.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으로 인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2-5(3층) ☎042)527-2073, 010-7777-70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사창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산강자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영암만민교회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235-1 ☎061)473-2707, 011-603-7766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파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2)528-3830, 010-772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